



‘움직이는 불교’ 변화바람 분다

경기 남양주·구리·가평

남양주·구리 남양주와 구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각각이지만 두 도시의 불교는 한 몸체다. 두 지역 사람들의 연합체인 남양주·구리 사원연합회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제는 남양주 불교다. 사람 수로만 봐도 구리의 30여 사찰에 비해 남양주 불교는 한 몸체다. 두 지역 사람들의 연합체인 남양주·구리 사원연합회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주 불교는 봉선사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봉선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이 지역의 상당수 사찰이 봉선사 말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선사의 역량은 남양주 불교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은 요즘 남양주 불교 흐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봉선사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봉선사는 2003년 10월 철안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정적인 사찰’에서 ‘동적인 사찰’로 변신했다.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재개되고, 자원봉사자 등 각종 신행단체들의 활동이 왕성해졌으며, 불우이웃돕기를 비롯해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

치는 등 활발한 신행과 사회활동으로 봉선사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다.

그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남양주 불교가 최근 2년 새 상당히 바뀐 것도 바로 봉선사의 변화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평화·환경·인간’ 프로젝트는 향후 봉선사의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평화와 관련해 철안 스님은 화천군과 공동으로 이라크와 코소보 전쟁 참전국들과 중공군(한국전쟁 당시)의 탄피를 모아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이 보이는 곳에 ‘평화의 종’을 만들어 세계 평화를 다짐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환경 프로젝트는 이미 실행 중이다. 얼마 전 소방차를 구입해 봉선사와 인근 수목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기원을 마련하고, 환경계시판을 경내에 설치했다. 이와 함께 ‘환경교육상’ 제정 방침도 세우는 등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다.

‘인간’ 프로젝트는 곧 인재불사이자 인간에 대한 회향의 의미를 담고 있다. 광동중고등학교를 설립한 운허 스님과 영경 및

교육에 평생을 바친 월은 스님(봉선사 조실)의 뜻을 이어 ‘어린이에게 꿈, 어른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는 안심을’이라는 모토로 각종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남양주 불교가 변하고 있는 데는 지역불교를 발전시켜보겠다는 몇몇 사람들의 노력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대광사주지 혜원을 중심으로 한 남양주 수동면 소재 20여 사람들이 지난해 11월 수동사암연합회를 결성하고 노인잔치와 남아시아 지진재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에서 봉선사 주지이자 남양주·구리 사원연합회 회장인 철안 스님이 포교경험이 풍부한 무량사 주지 금담 스님을 사원연합회 공동회장으로 받아들이는 등 화합무드를 조성하면서 사원연합회의 활동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물론 남양주 불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



봉선사 주최로 6월 12일 영종도 마시란 해변에서 열린 어린이 갯벌체험 행사 모습. 교종본찰인 봉선사는 각종 법회와 신행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복지에 나서면서 역동적인 사찰로 변모했다.

- 남양주 봉선사 중심 법회·신행단체 활동 왕성
- 구리 기독교세에 밀려 침체...활로찾기 고심
- 가평 불교대학 잇따라 열고 신도교육 역점

피해민 돕기 거리타발에 나서면서 ‘움직이는 불교’ 이미지를 심었다.

또 무량사주지 금담은 자원봉사단체인 천수천안 남양주·구리 지부를 결성해 봉사활동을 나섰고, 원평사주지 대륜은 불교전통공물 강좌, 백천사주지 무구는 노인잔치, 해원사주지 해동법사는 군 포교, 원적사주지 남은는 청소년 장학사업 등의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남양주의 대부분 스님들이 발전 가능성에 대해 예외 없이

이다. 더 많은 사람이 ‘발전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하고, 아파트와 교회 등이 계속해 들어오고 있는 급속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뜻하는 스님들은 말한다.

남양주 불교가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구리 불교는 기독교세에 밀려 아직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3년 구리 사원연합회 결성이 좌초되면서 사찰들 간의 교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평 남양주와 마찬가지로 가평 불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는 가평 불교를 대표하는 현등사 백련사 대원사가 자리잡고 있고, 가평의 상면과 하면에 위치한 사찰들의 연합체인 상·하면 사암연합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우선 가평불교 1번지인 현등사는 가평의 면모를 일신하면서 신행과 포교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사찰을 지역민들의 휴식처로 바꾸는 등 ‘다가가는 불교’ 이미지를 심으면서 지역불교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백련사는 불교교양대학과 경전학교, 일요법회를, 대원사는 구역법회와 불교교양대학을 통해 신도교육과 신행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상·하면에 위치한 사찰들이 단합해 연합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서면서 지역 불자들의 자긍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가평불교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많다. 가평은 100여 개의 사찰이 있는 전통적으로 불교세가 강한 곳이다. 하지만 사암연합회가 없는 데다, 일부 사찰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찰들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게다가 통일교 본부와 예전 선교센터가 자리 잡고있어서 불교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의 사찰들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가평불교 전체를 대표하는 사암연합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고, 군청 불자회와 경승 구성도 준비 중에 있는 등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추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평화·환경·인간’ 포교 모토

철안 스님 (봉선사 주지, 남양주·구리사원연합회 공동회장)

“젊은 마인드와 과감한 결단력으로 남양주 불교의 새 시대를 열었다.”

남양주 스님들은 한결같이 봉선사 주지 부임 후 1년 9개월 간의 철안 스님 활동을 이렇게 평가한다.

최연소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로 불교계 인파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철안 스님은 2년도 안돼 봉선사를 역동적인 사찰로 변모시켰다.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를 모토로 사이버법당을 열고 영어학당을 개설하는 등 포교 활성화에 나서며, 불우이웃돕기 행사와 모내기 행사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 하는 봉선사’라는 이미지를 고양시켰다. 일주문과 대웅전 현판을 한글로 바꾸고 경내에 있는 유적유물을 리모델링하는 등 친근감도 높였다.

이와함께 남양주·구리 사원연합회장을 맡아 지역 사찰들간의 화합을 유도하고 천수천안 남양주·구리 지부장을 맡아 지역복지에 적극 나서면서 남양주 불교발전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철안 스님은 ‘평화·환경·인간’을 추구하는 새로운 봉선사 이미지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한일교류·복지사업 ‘구슬땀’

남정 스님 (남양주 수선사 주지, 총화종 총무원장)

15년째 총화종 총무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일불교 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 종단협의회 상임이사, 경찰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고문으로도 활동중이다.

22년 전 수선사를 창건, 지역불교 발전에도 기여했다. 현재는 남양주 경찰서 경승실 고문, 남양주·구리사원연합회 고문, 천수천안 남양주 지부 고문 등을 맡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남정 스님은 독거노인을 돕고 불우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할 생각이다.



수동면 20여 사찰 화합 주도

혜원 스님 (남양주 대광사 주지, 수동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2년 전 대광사를 창건, 남양주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남양주 수동면 소재 20여 사찰의 연합체인 수동사암연합회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주도하는 등 연합회를 잘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포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 수동면 사찰들과 함께 불교회관을 마련해 교양대학을 운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지역포교에 나서고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박차

금담 스님 (무량사 주지, 남양주·구리사원연합회 공동회장)

올해 초부터 남양주·구리 사원연합회장을 맡아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여념이 없다. 교양사업 관련 회장을 맡았을 당시 자원봉사단체인 천수천안 창립을 주도했으며, 지난해 6월 천수천안 남양주·구리 지부를 창립, 봉사단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 경승실로도 활동중.

금담 스님은 지역어건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불교문화화를 통해 지역정서를 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소신이 확고하다.



교양대학·경전학교 문열어

승원 스님 (가평 백련사 주지, 상·하면 사암연합회장)

승원 스님은 5년째 백련사를 가평 불교의 중심 사찰로 바꾸어 놓았다. 교양대학과 경전학교를 개설해 신도교육에 나서는 한편, 군 및 교도소 포교 활동도 하고 있다. 또 상·하면 사암연합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일반에 분양하는 사찰 납골묘와는 달리 신도와 그 가족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도탑을 조성해 놓았으며, 야수터를 만들어 시민들의 편의도 돕고 있다.



‘스노보드 수련회’ 이색 포교

가산 스님 (남양주 보광사 주지)

가산 스님은 1989년 미국에서 미주현대불교를 창간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불교방송을 설립하는 등 해외 포교활동을 벌이다 1998년 귀국, 지금까지 보광사 주지를 맡고 있다. 봉선사 총무국장 소임을 두 번째 맡고 있을 정도로 중무행정에 밝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남양주·구리사원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남양주 시청 불자회인 ‘보리회’ 결성의 산파 역할을 했으며, 정기적으로 ‘스노보드’ 겨울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이색포교를 벌이고 있다.



진입로 개설 등 사찰 재단장

초격 스님 (가평 현등사 주지,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4년 전 주지로 부임한 이래 현등사를 확 바꿨

었다. 전각 보수불사와 진입로 개설 등 의뢰는 물론 이교 불교대학을 통한 신도교육 등 내실도 다졌다.

가평군 상·하면 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맡아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군법당을 방문하는 등 군 포교에도 나서고 있다.

초격 스님은 현재 조계종 중앙총회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민주평화통일정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유아교육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복지에도 관심이 많다.



불교대학 통해 교육 체계화

도일 스님 (가평 대원사 주지)

도일 스님은 40대 초반의 젊은 스님답게 대원사를 활기차게 이끌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대원사 주지로 부임하자마자 불교교양대학을 개설, 신도교육에 나섰다. 공무원 교양대학 수강자들의 편의를 위해 읍내의 신도 사무실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열의가 높다.

대원사 대웅전 아래 위로 시민선학과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해 다양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불경, 금책, 금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인 지장본원경)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들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장전 차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성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칙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성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던 3대 특산품의 금강아열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성 온열복대는 약들이 70~80°C이상의 고열이 발생했을 깊숙이 원칙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썩음을 동시에 시술하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으면 있어도 정속의 노폐물 배출, 허벅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인기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血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허벅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정자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한 분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칙외선 “침” 썩듬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듬을 관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운 물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성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칙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성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정수하세요.

문의전화 : 덕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